

저희 스미스채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적 거룩함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땅에 번성(multiply)하는 꿈이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1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권씩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 예배당 복원을 위한 기도:** 예배당 복원 작업으로 인해 당분간 장소 사용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의 제목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복원 과정을 분별하는 우리에게 하나 됨과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 복원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채워지게 하소서.
- 속회 모임 안내:** 앞으로 일정은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 –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대표기도	성경봉독	말씀	성찬위원
1/4/26 이신천	채영원	강주은	강호	강주혜
1/11 김종문	김연미	박미자	강호	김호연
1/18 박진철	양성심	이신천	강호	강주은
1/25 채영원	강호	강주혜	강호	김연미
2/1 김종문	김호연	박미자	김연미	-



스미스채플 글로벌 감리교회 그레이트폴스 캠퍼스

한국어 예배

2026년 1월 4일

오후 1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23

© GODpeople.com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the Spirit and in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seeks.

John 4:23, NIV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편 147:12-20

이신천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네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네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 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alleluia**.

찬송 Hymn

550.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321. 날 대속하신 예수께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
스미스채플 글로벌 감리교회

11321 Beach Mill Road, Great Falls, VA 22066. 571-434-9680
www.SmithChapelGMC.org/in-Great-Falls

대표기도 Prayer

성경 봉독 Scripture

말라기 1:6-11

채영원

강주은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좋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⁷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뺨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⁸ 눈면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⁹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으레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¹⁰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¹¹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특별찬양 Special Song

말씀 Sermon

목사 냄새나는 목사
그리스도 냄새나는 그리스도인

양성심

강호

말씀 노트:

묵상 나눔 질문

-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아버지”로 공경하고 “주님”으로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익숙함으로 가볍게 대하고 있나요?
-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남은 것’을 드리고 있나요? 시간, 마음, 집중, 준비, 헌신... 무엇이 “남은 것”처럼 드려지고 있나요?
-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느껴지나요?

묵상 나눔 Reflection Sha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성찬식 Holy Communion

성찬위원: 강주혜

파송 찬송 Sending off Hymn

323.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축도 Benediction

한주도 주님 안에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살롬살롬!